나라도 번쩍 드는 신앙의 지레원리

(사무엘하 13:1~22)

15.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16.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17.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18.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19.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20.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라도 번쩍 드는 신앙의 지레원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나라도 번쩍 드는 신앙의 지레원리'
지레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가 시라쿠시아의 히에론 왕에게 한 말이 지금까지도 유명한 말로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에게 받침대와 충분히 긴 지렛대만 주면 지구도 움직여 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아무리 크더라도 지구를 들 수 있는 부러지지 않을 지렛대만 있다면 한 사람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보지는 않았음에도 마음속에서 공감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레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선민의 삶도 한 마디로 말해 지레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레

의 원리로 지구를 들 수 있다면 나라도 번쩍 들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원리를 따른다면 날마다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편의점 알바로 살고 있고 사글세방에 네 식구가 모여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몸으로 만나는 일과 사건들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들도 지레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무척 쉬울 것입니다.
지레의 원리대로 삶의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레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레의 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지렛대의 한쪽 끝은 작용점이고 그 가까운 곳에 받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점에서 멀리 떨어진 나머지 한쪽 끝이 힘점입니다. 힘점으로부터 가해진 힘은 받침점을 통해서 작용점을 들리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내 몸은 받침점이고 내 몸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작용점이 됩니다. 힘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만나는 대상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 몸이 받침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렛대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면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내지는데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움직인 마음의 길이가 지렛대가 됩니다. 땅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잇는 길이의 지렛대로 이 땅에서 들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땅에서 몸으로 만나는 것들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움직인 길이만큼의 지렛대가 만들어지고 아브라함의 몸은 받침점이 되고 아브라함이 몸으로 만나는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들려올라가는 작용점이 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듯 신앙적 지렛대의 원리는 내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전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힘만이 나타나므로 이 땅에서는 내가 힘을 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다 가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것에 힘을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지렛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봐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가족 사업 친구나 친지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몸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몸으로 대한민국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레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독도문제라든지 국회에서는 민생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여야가 싸움질만 한다든지 이북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대는 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들 때에 나라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내 몸에서부터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 길이가 지렛대가 되고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 수 있는 받침대가 됩니

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소한 일 밖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렛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스파게티 면을 늘려서 지렛대를 삼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즉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이루어져야만 튼튼한 지렛대가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과 깊게 친해질 수 있고 이것이 지렛대를 견고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날마다 수십 수백 번이 반복되고 일 년 반복되면서 지렛대의 힘이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대한민국을 당신의 뜻대로 들어 올리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경우에서처럼 '나를 봐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환란이 있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받침대로 삼으셔서 중동전역의 기근으로부터 중동사람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모세를 받침대로 삼으셨을 때에는 당시의 초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받침대 삼으셔서는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있었기 때문에 그 지렛대의 강도는 가장 강했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로 가시면서 지렛대를 하나님께 제공하셨기 때문에 힘을 주시므로 오고 오는 세대 마지막 모든 인류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레의 원리로 사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다윗의 집안에는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의 생애의 말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참혹한 범죄의 대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용서하셨고 생명은 받아들여 주셨지만 죗값에 대해서는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우리 또한 이러한 재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죗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재난이 임한 다윗의 모습에서 지레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여러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암논이 장자였고 압살롬은 셋째였는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인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장자였던 암논이 다말에게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암논의 사촌 요나답이 간교한 꾀를 내어 다윗 왕에게 부탁하여 다말을 문병 오도록 시켜서 범할 계획을 세웁니다.
7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라고 합니다. 옛날 왕궁에서는 공주들이 사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논이 함부로 다말을 데려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계획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되었고 결국은 암논은 다말을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근친상간은 율법으로 금지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암논은 마땅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으나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라고 합니다. 상사병이 날 정도로 욕정이 강했는데 강제추행하고 나서는 더 강하게 미워했습니다. 마치 창녀 대하듯이 대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고 할 뿐 이 악행에 대한 어떠한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을 내리지 않는데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신앙인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또한 왕의 공적인 차원에서 자식에게도 마땅히 나라의 법을 적용해서 심판했어야 했던 왕도를 가르치려함도 아니라 신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 수 있겠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인데 신앙의 지레의 원리가 다윗의 몸과 마음 안에서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신앙의 지레의 원리가 작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금식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자 금방 기운을 차리고 밥을 먹었을 때 신하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윗은 12: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라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아파 죽어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구해주실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로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는 하지 않았던 믿음에 대한 칭찬을 이방인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보면 마15: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할 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에는 신앙의 지레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마음 상태인데, 다윗이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지길 바랐던 것과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나는 받침대가 되는 것이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인데 아기가 죽었습니다. 내가 받침대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지렛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지렛대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하

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기가 죽었을 때에 오히려 밥을 먹었던 것처럼, 암논의 패륜적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기만 했지 처벌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 이 사건을 암논의 범죄로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침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지렛대를 드리지 못한 결과로서 벌어진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암논의 일이나 이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로 인해 올바른 받침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렛대를 하나님께 쥐어 드리지 못했던 결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로 지레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마음상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러한 죗값은 주님께서 다 받으셨고 지금도 흡수하고 계십니다.

루터가 “우리는 일평생 절뚝거리듯 죄를 짓게 될 것인데, 그 때마다 마음에서 세례를 반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세례식은 한 번이지만 세례식이 갖는 죽음의 의미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세례의 반복(Daily Baptism)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몸으로 만나고 있는 세상 것들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할 때에 지렛대가 형성되고 또한 그동안 내가 올바른 받침대가 되지 못해 일어난 죄의 결과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윗에게 임한 것과 같은 형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흡수되고, 내 마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지렛대를 만들어주면서 내 마음이 따라 하늘로 올라가 지렛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사소한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십자가에서 그것들에 대해 죽으며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자식과 사업에 나라에 이상이 생길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반복함으로 하나님과의 친해짐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지렛대가 강해질 때에 비록 편의점 알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역사까지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큰일에 앞서서 우리는 우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지렛대를 쥐어드리고 몸은 받침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만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라도 남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올바른 받침대의 역할과 지렛대가 되지 못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레의 원리를 통해서 삶이 신나고 쉽고 멋지게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 큰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지레의 원리가 작동되는 삶을 살아서 매일 나라를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